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축하합니다[세례 및 양육수로]
장영훈 성도 정지아 학생 웨인리 집사 한소는 집사

3 강남동지방 여선교회 계삭회
계삭회; 일년 네 계절의 첫 달에 각 개체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지역별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4. 18(목)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 여선교회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아 유치부 예배
예배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대상 36개월~7세
(36개월 미만은 부모동반 예배시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염민아 전도사 010. 2796. 7262

5 다음세대 2기 성품학교&문화학교
4.20 개강 | 7.20 종강 (14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2층 교육관
말씀 중심의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이기는 다음세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교실 미술교실 체육교실 *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참고

6 담임목사
4.15(월) 태화복지재단(광화문)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명국 성도

“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 배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다음세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 시 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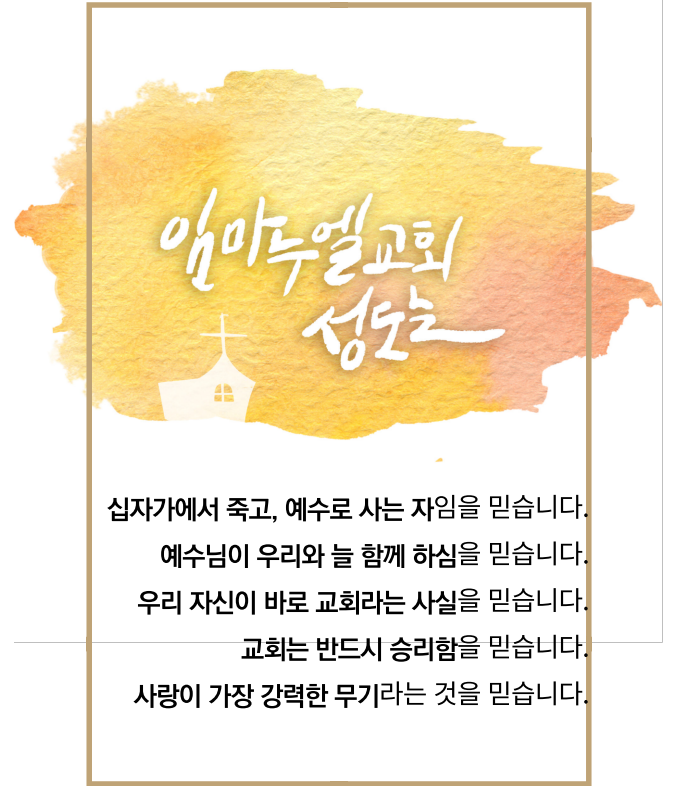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독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익산벤엘교회 마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김선미 권사 2부 마승초 장로
성경	사도행전 7:51-60(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하나님은 선하시다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4/21 1부 김성진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4/28 1부 김은수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주중모임

[수요예배] 오전 10:30

열왕기상

김영광 목사 유한나 목사

[전도]

수요전도대 오후 1:00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눴을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오 신실 하신 주
말씀_사도행전 7:51-60



스데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함을 받고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전 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죄명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스테반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마음과 표정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악한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하여 꼬집어 말하기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은 그 마음이 찢렸고, 그런 스테반을 죽이기 위해 이를 갈았습니다. 계속된 스테반의 선포에 이들은 귀를 막으며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결국 스테반은 이들의 분노가 가득 담긴 돌에 맞아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스테반을 구하지 않고 그냥 두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테반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테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가정예배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시119:68)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재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스테반과 그 죽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스테반이 죽는 과정에 사울이 등장했고, 그 사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성도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나누어 봅시다.
- 2)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고백 하시겠습니까? 그 결단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